

## 오뚜기의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

오뚜기는 국민의 의식주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식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신념으로, 보다 좋은 품질, 보다 높은 영양, 보다 앞선 식품으로 식품을 통한 인류의 식생활 향상,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와 소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이념과, 더 나아가 인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업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 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오뚜기는 전사 차원에서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9월 1일 환경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자연과 함께 맛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발걸음의 하나로, 우리의 원자재의 안정적이며 환경재건적 공급 체인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특히 생산된 원료들의 완전한 사용과 생산한 식품의 완전한 소비를 유도하여 낭비를 제로화하고자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우리가 전세계의 육지와 바다를 비롯한 환경생태계로부터 조달하는 원료 중, 오뚜기가 주로 사용하며, 가장 빨리 환경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핵심 원료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지속가능 조달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려고 합니다.

육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곳임과 동시에 식량안보, 동물복지, 토지오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을 통해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인간과 생태계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육지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동참하려고 합니다.

또한 바다는 육지보다 더 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지구의 열에너지를 순환시켜 이상기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환경생태계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태계입니다. 이러한 바다의 생태계가 무분별한 어업, 해양 오염 등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쌀, 대두, 팥, 강황, 계란, 참치 6 가지 원료를 선정하여, 각 원료에 대한 우리의 조달 현황과,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을 설명합니다. 이 정책은 오뚜기와 관계사 및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와 원료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 친화적일수록 초기 비용이 늘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리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안을 모색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좋은 일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겉치레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과 함께 우리의 지속가능경영은 계속될 것입니다.



# 1. 쌀(Rice)

쌀은 세계 3 대 곡물 중 하나로,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곡물 원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이며, 자급자족을 100% 이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식량 자원입니다.

그러나 국민 식습관의 변화와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밀과 같은 식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투기는 쌀 조달을 증대하여 쌀의 소비 촉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쌀 생산농가 및 미국종합처리장(RPC)와 함께 상생하며 쌀 생산, 가공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2004 년 ‘씻어나온 쌀’과 ‘오투기 맛있는 밥’ 생산을 시작으로 국산 쌀 구매물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오고 있습니다.

## 1) 약속

우리, 오투기는 쌀의 지속가능한 조달을 위해 토양보존, 수자원 보호, 국내종자 사용 확대를 통한 종자주권 확보 그리고 친환경 쌀 구매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쌀 조달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① 쌀 재배 시 사용되는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농약허용기준강화(PLS)제도를 준수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잔류농약 기준 이하의 농약 기준으로 관리하여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② 쌀 재배농가의 화학비료 사용 최소화 및 과다 사용방지를 위한 시비교육을 진행한다.
- ③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자연하천을 이용하고,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④ 고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내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종자주권확보, 식량안보확보,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⑤ 농가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직접구매로 유통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 2) 노력

오투기는 ‘씻어나온 쌀’, ‘오투기밥’, ‘죽’류 제품에 쌀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씻어나온 쌀’, ‘오투기밥’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① ‘씻어나온 쌀’, ‘오투기밥’

우리는 국산 종자를 사용한 고품질 쌀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계약재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광벼, 일품벼, 친들벼 전량을 RPC를 통해 계약재배 및 직접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② 친환경 쌀

우리는 앞으로 무농약 쌀, 유기농 쌀, GAP 인증 쌀을 사용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토양 오염 방지, 저탄소 재배 농법 확대 등을 통해 토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 진행률

원재료	원산지	지속가능노력및인증	2023년	2025년
쌀	국산	계약재배	30%	50%

\*23 년은 말일 기준 목표치



## 2. 대두유(Soybean Oil)

대두유는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식용 유지입니다. 우리는 대두유를 정제하여 사용,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담긴 콩을 사용하여 제조한 기름이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름만큼 그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서의 환경적, 윤리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ESG에 관련하여 소비자의 요구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부분의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식품 업체로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인증에 관심을 가지고 발빠르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철저한 ESG 관리 감독을 거친 대두유를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의 아메리카 대륙에서 조달하려고 합니다.

### 1) 약속

우리, 오투기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ESG 프로그램인 "Sustainable Soy"를 사용한 대두유를 조달하고자 하며, 향후 미국에서 수입된 물량은 100% 전량 인증된 물량만을 조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의 대두에 대해서도 생산자에게 "Sustainable Soy"와 같은 지속가능성 관련 인증서를 요구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생산된 대두를 취급하는 제조사에게서 대두유를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 생물 다양성과 고탄소 발생에 대한 통제 조치와 규제 준수
- ② 생산 방식에 대한 통제 조치와 규제 준수
- ③ 공공 및 노동 보건의 복지
- ④ 생산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과 환경보호

### 2) 노력

현 시점에서는 미국산 대두유에 대해서만 ESG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투기는 사용량 및 국제 대두유 시장 및 현황에 따라 미국 외 남미, 베트남 등으로부터 대두유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오투기는 사용하는 대두유 전량 지속가능인증을 획득한 대두유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미국대두협회(USSEC)과 협업하여 Sustainability Certificate 를 충족하는 미국산 대두유의 수입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향후 수입하는 미국산 대두유 중 40% 이상을 "Sustainable Soy"를 사용한 대두유를 조달하겠습니다. 남미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제조사에게도 지속가능인증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추후 관련 인증서를 모든 제조사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진도율

품목	지속가능 노력 및 인증	2023년	2025년	비고
대두유	Soy Sustain 인증	0%	40%	타 원산지 대두유는 제외



### 3. 팜유(Palm Oil)

팜유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입니다. 우리도 팜유를 라면과 식용유 제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팜유 생산으로 생산지의 열대우림 파괴라는 환경적 이슈와 노동 착취, 노동 인권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투기는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팜유 사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삼림 파괴 없이 지속가능한 팜유의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약속

오투기는 2011년 국내 최초로 RSPO 회원사로 가입하였습니다.

초기에는 Book&Claim 인증으로 간접적으로 RSPO의 지속가능성 사업 및 활동을 금전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 팜유를 구매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Mass Balance 인증(RSPO 인증 팜유와 비인증 팜유를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 팜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송공장은 2020년 이후 RSPO에서 요구하는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 받았고, 매년 정기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투기는 RSPO에서 명시한 아래 내용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① 환경적 책임과 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 ② 종업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 ③ 신규 농장의 책임 있는 개발
- ④ 지속적 개선

#### 2) 노력

현재 우리의 팜유는 주로 라면과 B2B 식용유 제품에 사용되며, 초기에 RSPO Credit을 적용했고, 2022년부터는 직접 인증방식인 MB 인증 팜유 구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2025년까지 팜유의 30% 이상, 2030년까지 50%까지 RSPO 인증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3) 진도율

품목	지속가능 노력 및 인증	2023년	2025년	2030년
팜유	RSPO 인증	2.5%	30%	50%

\* 2023년은 연말 기준 목표치 (작성일 기준 1.0%)



## 4. 강황(Turmeric)

강황은 생강목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열대/아열대 지역인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며 그 줄기와 뿌리가 식용,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강황은 오투기 카레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의 주요 원료이며, 오투기는 인도 중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커큐민 함량이 높은 강황 품종을 핑거(Finger) 형태로 구매하고 있으며, 최신 설비가 갖춰진 자체 공장에서 정선, 살균, 분쇄, 선별 공정을 거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황의 지속가능조달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 1) 약속

우리는 안정적으로 강황을 구매하기 위해서 인도의 강황 가공업체들과 100%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구매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황 재배 농부들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뿌리식물인 강황의 특성 상, 전통적인 가공방식의 경우 토양으로부터 씻가루가 유입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업계 최초로 수세척 방식의 가공 공정을 적용하여, 씻가루 함량을 최소화한 강황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투기는 이러한 강황의 산지와 가공공장의 추적가능성을 100%로 높일 것을 약속합니다.

### 2) 노력 및 목표

오투기는 강황 산지와 가공공장의 추적가능성 100%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가공업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생산시즌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의 노동 인권과 노동 착취 등 품질 외 지속가능성 요소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강황 농가에 대한 추적가능성 100%를 목표로 공급업체들과 노력하겠습니다.



## 5. 계란(Egg)

계란은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전국민에게 사랑받아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식재료입니다. 계란은 오뚜기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원재료로, 당사는 국내 최초로 생산한 대표 제품 마요네스, 그 외의 드레싱 등 소스 제품에 국내외에서 조달한 계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많은 사회적 이슈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 2021년에는 조류독감 확산,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A4 용지의 2/3 넓이에 불과한 공간에서 한평생 알을 낳다 생을 마감하는 산란계의 사육환경 문제로 인한 동물복지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더 안정적으로, 더 윤리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동물복지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 1) 약속

우리는 2012년부터 시행된 동물복지인증제도의 산란계 농장 인증 기준에 따라, 동물복지 인증을 취득한 계란을 사용하고, 그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 \* 동물복지 인증기준 (산란계 농장)

- ① 케이지 사육이 아닌 평사나 방사사육, 혹은 다단식 사육시설을 사용해서 사육할 것  
사육시설 내 15cm 이상의 햇대를 제공하고, 바닥은 1/3 이상 덮이도록 깔짚을 제공할 것
- ② 사육밀도는 바닥면적 1㎡ 당 9수 이하의 밀도로 할 것
- ③ 닭의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부리를 자르는 것과, 사육편의를 위해 닭을 굶기거나 빛을 차단해 강제로 털갈이를 시키지 말 것

### 2) 노력

오뚜기는 위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취득한 농장으로부터 조달된 계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사용한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적용 범위와 사용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진행률 및 목표

원산지	지속가능 노력 및 인증	2023년	2025년	2030년
국산	동물복지인증 계란 사용	7%	10%	20%